

신종플루와 결핵

글 공석준(국립목포병원장)

‘세계 신종플루 긴장 고조’
‘미국 신종플루로 비상사태 선언’
‘서울 초중고 신종플루 환자 1만 명 돌파’
‘신종플루로 사망환자 또 늘어.....’

연일 신종플루에 대한 뉴스가 쏟아져 나옵니다. 지난 5월부터 시작된 신종플루는 보건의료계의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초기에 보건당국의 강력한 조치로 신종플루 확진 및 의심 환자 전원을 입원격리 치료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로부터의 끊임없는 유입으로 지역사회 감염으로 확대되었고, 급기야 정부는 격리 중심에서 치료 중심으로 방향을 바꾸어 대유행에 대비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신종플루에 대해 지나칠 정도로 두려움을 갖게 되고 정부에 완벽한 대비를 하도록 요구할 뿐 만 아니라, 손 씻기, 마스크 쓰기 등 개인적인 전염 차단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다양한 처방에도 불구하고 신종플루는 전혀 수그러들 기세가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제 예방 백신을 접종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효과는 언제쯤 나타날 것인지, 또 다가올 겨울을 무사히 넘길 것인지, 그 동안 새로운 변종은 생기지 않을 것인지 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필자가 근무하는 병원은 국가 결핵치료 전문병원이지만, 우리나라 서남지역의 유일한 국가지정 음압 격리병실을 갖추고 있어서 신종플루가 초기에 유행할 당시에 광주, 전남지역 뿐만 아니라 부산, 경남지역 신종플루 환자들을 격

리하여 치료하였습니다. 첫 신종플루 환자가 입원하였을 때 우리 의료진들은 완벽한 시설과 장비에도 불구하고 긴장되었지만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과감히 진료에 임했고 별 이상 없이 무사히 임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물론 입원 중인 결핵환자들에게 신종플루가 전염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결핵만 치료하다가 이렇게 두 질환을 동시에 치료하게 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종플루와 결핵은 같은 호흡기 계통의 감염병이지만 전염과 병의 진행 양상 및 치료가 서로 다릅니다. 신종플루는 전염 속도가 매우 빠르지만 우려한 만큼 독성이 강하지 않아 사망률이 일반 독감 수준인 데 비해 결핵은 국민의 1/3이 이미 감염되어 있고, 하루에 100여 명이 새롭게 발병하며 약 7명이 매일 사망하는 만성 감염병으로 신종플루보다 결코 가볍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신종플루는 치료기간이 5일이지만, 결핵은 최소한 6개월 이상이니 결핵이 훨씬 두려운 감염병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매일 매스컴에서 신종플루에 관한 뉴스를 내보내듯이 매일은 아니어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결핵의 발병 상황, 합병증 환자의 상황, 결핵으로 인한 사망 환자의 상황을 보도한다면, 또 결핵퇴치를 위해 전 국민이 결핵의 예방, 발견, 그리고 치료에 최대한의 관심을 갖고 대처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아가 보건당국에서도 이에 대한 적절한 정책과 충분한 예산으로 지원한다면 우리나라 결핵 상황이 과연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하는 행복한 추측을 해봅니다.

이제 신종플루 백신을 접종하게 되고, 보건 당국의 적절한 대책과 국민들의 현명한 대처로 신종플루는 머지않아 곧 해결되리라 믿습니다. 이번 신종플루 유행에 대처함에 있어 비록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또 다른, 더 치명적이고 더 전염성이 강한 감염병의 습격에 대비에 아주 훌륭한 경험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아울러 결핵 상황도 빠른 시일 내에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보건당국과 의료계, 국민 모두가 결핵퇴치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모든 역량과 중지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